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최 윤 나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최 현 자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최 윤 나

최윤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 록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절대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저출산율로 인하여 상대적인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노인소비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과거에 비하여 길어진 은퇴기간, 부모부양의 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소비자 스스로 노후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재무관리를 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노인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인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여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재무 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김정현(2011)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의 개발 연구의 본조사 자료를 가지고 PASW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통하여 척도를 단순화하였다. 추출된 문항들 중에서 노인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을 제거하고 문항의 표현들을 노인소비자들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총 43문항으로 구성된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가지고 노인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진단하고, 노인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과 노인의 재무복지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PASW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를 위한 재무관리역량 측정을 위하여 기존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재무관리역량 척도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노인소비자가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통하여 44개 문항을 선정한 후, 선정된 문항들을 노인소비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노인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구성하였다. 단순화된 척도는 노인소비자와 같이 문항 이해나 오랜 시간 설문이 어려울 수 있는 소비자들을 조사할 때 용이하며, 문항수가 작아 한 연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척도수가 늘어나므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이용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17점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인인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중에서 재무관리지식 점수가 다른 구성요인에 비하여 저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재무관리에 있어 태도역량이나 기능역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식역량이 부족한 편임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의 인지적 영역 역량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비자 특성별로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더 높은 재무관리태도 점수를 나타냈으며,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기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하여 재무관리에 대하여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지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재무관리의 실천적 영역 역량을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재무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른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적 재무복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 총점 및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들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객관적 재무 복지와 주관적 재무 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재무 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재무관리역량이 노인소비자의 재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과제로 언급되어 온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역량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노인소비자를 위하여 구성된 재무관리역량 척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교육 및 금융 교육을 실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 및 재무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소비자의 재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노인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재무관리역량 척도, 재무 복지
학번 : 2010-2363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4
제 1 절 금융시장에서의 노인소비자	4
제 2 절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7
제 3 절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구성 관련 연구 고찰	13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9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자료	19
제 2 절 연구방법	21
제 4 장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22
제 1 절 재무관리역량 척도 구성	22
제 2 절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33
제 3 절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 복지	5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54
제 1 절 요약 및 결론	54
제 2 절 후속 연구에의 제언	56
참고문헌	58
부 록	64
Abstract	72

표 목차

[표 4-1]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1.....	24
[표 4-2]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2.....	25
[표 4-3] 최종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문항 분포.....	28
[표 4-4] 최종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문항	29
[표 4-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3
[표 4-6]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34
[표 4-7]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개별문항별 평균	37
[표 4-8]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지식 개별문항별 정답률	39
[표 4-9]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기능 개별문항별 평균	41
[표 4-10]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원점수	43
[표 4-11] 하위영역 및 구성요인별 재무관리역량 수준.....	44
[표 4-1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백분위 점수	46
[표 4-13] 노인소비자와 일반소비자의 구성요인별 점수 경향	47
[표 4-14]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노인소비자 재무관리역량	48
[표 4-15]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 복지와의 상관관계	50
[표 4-16]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객관적 재무 복지	51
[표 4-17]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주관적 재무 복지	5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인소비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소비 생활이나 경제 생활에 있어서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며 주체적으로 소비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로서의 노인 스스로의 역할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노인소비자의 소비생활 관련 문제는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심영, 2005). 노인소비자들의 특성상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들에 비하여 회복이 어려우며 특히 금융소비자문제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금융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구조의 재정립과 더불어 개별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배순영, 2011). 최근 정부, 공공기관, 개별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피해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금융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한다. 금융상품과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소비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올바른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재무관리역량이 중요하다.

노인의 금융소비자문제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인 소비자들의 소비자역량, 특히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재무관리역량과 관련하여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과제로 언급되어 왔다. 손상희(2000)는 노년층 인구 비율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생활비 확보 등이 해결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빈곤층 중 하나로 노인 소비자를 꼽았다. 노인의 소득 획득, 재정적 상황, 재무 행동, 재무 문제, 정보 이용에서

의 소외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현(2011) 역시 척도를 개발할 때와 실증조사를 수행할 때 모두 주요 대상이 평균적 학력을 가진 일반소비자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특수 소비자 계층인 어린이나 노인 및 빈곤층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개발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김정현, 2011; 공정거래위원회, 2008 등)은 대부분 온라인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에 비하여 인터넷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노인 소비자를 사실상 배제해 왔다.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는 노인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다(기백석, 1996).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에 비하여 외래어나 영어식 표현 또한 재무관리와 관련된 전문용어 등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많은 문항에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여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을 살펴보고, 구성 요인 및 하위 영역별로는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재무 복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역량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학문적인 의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의 제 1절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노인소비자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 2절에서는 재무관리역량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후, 제 3절에서는 척도의 단순화를 다룬 연구들을 통하여 척도 단순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금융시장에서의 노인소비자

1. 노인소비자의 특성

노인소비자란 생애주기상 노년기에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 자원의 평가, 획득, 배분 및 사용, 처분하는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이다(이윤정, 2010). 즉, 노인소비자는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있어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와는 구분되는 소비자로서, 노년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보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7%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9). 평균수명의 증가와 지속적인 저출산율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소비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박영순(2006)에 의하면 OECD에서도 향후 소비자의 정책 이슈로 노인소비자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처럼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래 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하여 이에 대한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¹ 연구에 따라 노인소비자는 고령소비자 혹은 노령소비자 등 다른 용어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라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박영순, 2006; 서정희, 2011; 황진자, 2011 등), 노인들에게는 건강과 돈 그리고 고독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역시 건강과 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소비자는 질병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상당수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고, 지각한 건강상태와 실제 건강상태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서정희 2011).

박영순(2006)은 노인들은 건강과 더불어 자금관리에 대하여 주로 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노인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들은 작은 자본이라도 잘 활용하여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어느 계층보다 강하다. 김영근(2009)에 의하면, 노인소비자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며 사회적인 면에서 독립성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윤정(2010)은 노인소비자의 경우 대개 기억력이 감퇴하나 노인소비자는 상당한 세월 동안의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발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생주기에 있어 가장 큰 개인차를 보이는 시기라고 하였다. 최혜경(2011)은 노인소비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치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닌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2. 금융시장에서의 노인소비자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소비자가 거래상대방과 충분한 교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김병연, 2009) 다른 시장에 비하여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특히 노인소비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영순(2006)은 노인은 금융 상품이나 금융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간과한 채로 계약을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진자(2012)에 의하면, 노인소비자들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 재산으로 향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며, 이러한 불안감은 노인소비자로 하여금 자산운용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쉽게 넘어가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노인소비자의 경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여 있어 금융거래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인소비자 문제는 금융거래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황진자, 2012).

금융시장에서의 노인소비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은행에서 예전과는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고령소비자가 더 많은 금융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황진자, 2012).

제 2 절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1. 재무관리역량의 개념 및 실태

1.1 재무관리역량의 개념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그 수에 있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김정현(2011), 김정현 외(2011; 2012), 최현자 외(2010)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이 나타내는 개념은 학계와 실무자들 사이에서 금융역량, 재무역량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었고,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2008)는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 연구에서 소비자재무역량을 소비자역량²의 영역 중 하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소비자재무역량이란 소비자가 합리적인 재무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바람직한 실천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역량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2010)은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연구에서 금융역량을 소비자역량³의 3대 대영역 중 하나로 보았다. 여기서 금융역량은 금융역량에서의 소비자역량으로 장단기적 차원에서 소비자 재무설계능력과 금융상품선택능력을 포함한다. 한국금융연구원(2009)은 금융역량을 금융소비자가 평생 동안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는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은 개인의 경험, 상황, 성격이 반영된 세 가지 요인 - 재무관리지식(knowledge and understanding), 재무관리기술(skills), 재무관리태도(confidence and attitudes) - 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무

² 소비자역량이란 합리적인 거래나 재무관리, 소비자 권리행사,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및 바람직한 소비생활 실천태도를 의미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³ 소비자역량이란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이다(한국소비자원, 2010).

관리역량은 재무관리행동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FSA, 2005). 김정현(2011)은 역량⁴의 개념과 소비자역량⁵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을 규명하였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이란 특정 맥락(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개인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 결합되어 건전한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요인과 하위영역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무관리역량을 보다 작은 영역들로 분류하고 있었다.

먼저, 구성요인(component)이란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재무관리역량이 발현되는 지표인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에는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인이 있다(김정현, 2011).

개인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는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준비된 마음가짐 내지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의 각 측면에 대해 지니는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기춘, 1985)이다. 소비자가 가지는 재무관리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지식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사실, 개념 등을 의미하고, 소비자 행동의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요인(서은숙, 2008)이다. 소비자 재무관리지식은 소비자 재무관리행동의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소비자가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로서 효

⁴ 역량이란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OECD, 2003)이라는 OECD(2003)의 정의를 토대로 김정현(2011)은 역량이란 삶의 어떤 맥락에 있어서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내적요인도 포함하는 것이라 정리하였다.

⁵ 소비자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08 등)을 토대로 김정현(2011)은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태도, 지식, 기능의 총체라고 규명하였다.

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해야 할 사실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기능은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능력의 하위영역으로,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응용적, 실천적 영역을 뜻(김경자 외, 1986)한다. 소비자 재무관리기능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등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적이고 실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들을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2008)는 소비자역량을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재무역량, 소비자주의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소비자재무역량의 하위영역을 화폐관리영역과 신용·저축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정운영 외(2006)은 소비자재무관리를 재무설계기초, 소비지출, 세금관리, 신용관리, 위험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은퇴계획 및 상속으로 분류하였다. 김정현(2011)은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및 소비자 재무관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소비자 재무관리, 소비자 재무관리교육의 내용체계를 검토하여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을 규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2008), FSA(2005), Jump\$start(2007), 최현자 외(2003)를 종합하고 재분류하여 여섯 가지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여섯 가지 하위영역은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이다(김정현, 2011).

1.2. 재무관리역량의 실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한 김정현(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중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으로 나누어진 구성요인 중에는 재무관리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재무관리기능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노후설계영역과 위험관리와 보험영역이 저조한 점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 실천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재무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2010)은 소비자역량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소비자역량 역시 중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천영역, 지식영역의 순으로 나타나 지식영역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역량은 금융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금융역량 점수는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역량은 다시 재무설계력, 자산 및 부채 관리력, 위험 대비력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위험대비력, 자산 및 부채 관리력, 재무설계력 순으로 나타나 위험대비력이 가장 높고 재무설계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에 관한 기존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에 관한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현(2011)은 중·고령층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 이슈인 것에 비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계재무분야의 연구에 있어 중·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200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5월에 고령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보호 및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미국에서는 Lusardi & Mitchell(2007a, 2007b)와 Lusardi, Mitchell & Curto(2009) 등을 중심으로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해력이나 은퇴준비도 등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 왔다. Lusardi, Michelle & Curto(2009)는 2008년 Health and Retirement Survey에 포함된 금융이해력 조사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층 응답자의 금융이해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고령층의 금융이해력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Warthington(2006)은 호주에서 실시한 2003년 금융이해력 조사(ANZ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를 이용하여 성인의 금융이해력을 예측하는 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결과들이 있으나 연령과 금융이해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소비자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이질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특성에 비롯되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인 노인소비자를 단독 연구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50대 이상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많았다. 이는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조사대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재무관리역량과 재무 복지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증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재무 복지의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재무관리행동, 재무설계상담 혹은 재무관리교육의 산출물로서 재무 복지를 다루고 있다(계선자, 1999; 김경자 외, 2002, 안창희 외, 2006; 오종윤, 2011; 이경옥, 2010, 조동필 외, 2007 등). 이경옥(2010)은 경제적 복지감을 가계관리자들이 가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감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재무관리역량이 발현되는 지표인 재무관리행동은 재무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안창희 외(2006)에 의하면 개인이나 가계의 합리적인 재무행동은 경제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Xiao(2006)에서는 재무행동은 재무만족을 증가시키고 재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희(2000)은 재무관리일반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재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무관리행동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인 재무관리지식은 재무관리행동 및 재무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계선자 외(2000)에 의하면 재무관련 변수 중에서 재무지식이 경제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밝혀졌다. 최현자 외(2011)는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역량의 강화는 금융소비자의 재무적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재무관리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무관리 및 재무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재무교육, 재무지식 혹은 금융이해력, 그리고 재무 복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재무관리역량의 발현인 재무관리행동은 재무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위하여 재무관리역량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개발 관련 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척도의 단순화에 관한 여러 학문 분야의 기존 연구와 각종 통계 서적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척도의 단순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재무관리역량 측정 관련 연구 고찰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측정한 연구들(김정현, 2011; 최현자 외, 2010)과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재무지식과 재무행동에 대한 연구(차경옥, 2007)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역량의 하위영역으로 금융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2008) 및 한국소비자원(2010)의 소비자역량 연구도 살펴보았다.

김정현(2011)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행동으로 정하고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과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재무관리태도 척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행동 척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각각 Parrotta & Johnson(1998)의 ‘Financial Attitudes’,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Management’을 포함하여 각각에 맞는 우리나라 관련 연구들의 척도를 참고로 하였다. 앞서 개발된 척도들을 종합하여 내용요소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한 후 중복되는 문항은 통합하고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를 가지고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최현자 외(2010)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위영역을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행동 세 가지로 규명하였다. 재무관리태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15문항으로 이루어진 Parrotta & Jonson(1998)의 ‘Financial Attitudes’ 척도를 번역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 및 첨삭을 하였다. 수정 및 첨삭 후 전문가 의견을 수합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예비조사자료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

및 내적일치도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9문항의 재무관리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재무관리지식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6)의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30개 문항과 Parrotta & Johnson(1998)의 ‘Financial Knowledge’ 15개 문항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거하고 연구대상에 맞는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20개 문항을 가지고 내용타당도 검증 및 내적일치도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6문항의 재무관리지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재무관리행동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윤정(2005), 한국투자자교육재단(2008), 홍향숙 외(1999), Parrotta & Johnson(1998), Fitzsimmons 외(1993)의 재무관리행동 척도들을 참고로 하여 중복된 문항을 제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20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및 내적일치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재무관리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차경욱(2007)은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재무지식 수준을 연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행동 척도와 재무지식 척도를 구성하였다. 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재정자원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김정훈 2002; 김효정 2005; 정순희 2003; Horgarth, Beverly & Hilgert 2003; Garman & Forgue 1997; Wahlund & Gunnarsson 1996, 1997)을 토대로 연구자의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5점 리커트 척도의 2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신뢰도계수(크론바하 알파) 검증과 각 문항의 변별력을 조사하는 항목 분석을 통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3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재무지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owen(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국내외 대학교 가계재무설계, 가계투자 및 보험 등 관련 교과목의 전공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서적, 증권계, 은행계, 보험계의 FP(Financial Planner) 자격시험 대비서, 그리고 신문기사 및 금융관련 잡지, 인터넷 재무관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판단지표를 토대로 4지선다형 객관식 3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35개의 문항을 재무설계 전문가 4명에게 의뢰하여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20문항을 선정하였다.

한국소비자원(2010)은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과제로 소비자역량지수의 개발 및 측정을 수행한 바 있다. 2007년 개발 당시에는 소비자역량을 크게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재무역량, 소비자주의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역량 관련 참조자료 분석을 통하여 측정요소 풀을 작성한 후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문항 풀을 구성하였다. 문항 정제를 거쳐 최종 50문항으로 된 소비자역량 지수를 개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2010년에는 전문가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소비자역량의 지표를 수정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0).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금융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 3개 대영역으로 구성된 소비자역량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각각의 대영역은 3개씩의 중영역을 가져 총 9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도 순위를 토대로 9개 중영역은 다시 각각 3개 내지 2개의 측정요소를 가진다.

2. 척도 단순화 관련 연구 고찰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단순화 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척도 단순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 상황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기백석, 1996; 오영희, 2008; 최현자 외, 2010 등). 또한 연구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와 국내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 중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거하고 국내 실정에 맞추어 보다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내적일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척도 단순화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기존에 개발된 척도를 연구 대상에 맞추어 보다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 단순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와 요인분석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홍두승(2000)은 척도구성기법으로 개별문항과 척도 간의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의 구성, 회귀분석을 이용한 척도의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상관계수, 요인분석, 단계회귀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1. 상관계수를 이용한 척도 단순화 고찰

상관계수는 두 변수간의 관계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권경득 외 2006). 상관계수는 단순회귀식에서의 기울기인 회귀계수를 표준화시킨 값(혹은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상관계수 r 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많이 사용된다. 다만 r^2 의 값이 크다는 사실은 종속 변수에 대한 인과적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계적인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을 주의한다(홍두승, 2000).

상관계수는 척도 단순화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문항 추출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4 이상이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항목으로 간주되고 0.6이상이면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성태제, 2003), 연구자들은 0.4 이상에서 각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지닌 문항을 추출하거나 기준이 되는 상관계수를 정하여 문항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척도 단순화에 상관계수를 활용하고 있었다.

서은국(2011)은 행복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 경험으로 정서적 행복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조사에서 측정한 22개의 정서 경험 문항과 준거 문항(‘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했다. 각 정서 영역별로 준거문항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정서 경험 문항을 행복 정서를 대표하는 최종 문항으로 선정했다.

오영희(2008)는 한국인 용서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42개의 예비문항 중 최종적으로 2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5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문항을 제거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 기준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개별문항과 개별문항의 합의 상관계수가 0.3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2.2. 요인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고찰

요인분석은 다수 또는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여 의미있는 소수의 변수를 추출하는 통계방법(이순목, 2000)으로 자료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요인분석은 관찰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소수의 잠재변수로 설명하는 것이다. 요인분석은 변수들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의 유형을 밝혀 보다 적은 수의 요인들로 축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의 구성은 개별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계수 중 어느 수준의 것을 골라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유값이 1보다 큰 요인을 파악하고 이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값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문항들을 선택한다. 홍두승(2000)을 비롯한 여러 통계 서적의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면 0.50 정도의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척도의 요인구조 자체를 살피는 데 이 방법을 사용하거나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문항을 추출할 때 요인분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한 오영희(2008)는 요인분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EFI척도가 한국인을 위한 척도로 사용되려면 3요인보다 1요인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후에 예비문항에서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섯 가지 기준은 평균이 극단적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문항, 문항-전체 상관이 .30 이하인 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문항($r=.18$ 이상), 용서집단과 비용서집단에 대한 t검증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 그리고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으로 이 기준에 의하여 문항을 제거하였다.

2.3.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고찰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함수관계를 밝히는 통계적 기법(강상진, 2002)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

로 규명하는 방법이다. 회귀분석은 축소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문항 가운데에서 보다 적은 수의 좋은 문항을 고르고자 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홍두승, 2000), 이 때에 사용되는 회귀분석으로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들 수 있다.

단계선택 회귀분석은 개별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하여 종속변수를 만들고 개별문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수행된다. 모형에 설명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남아있는 설명변수들 중에서 하나씩 추가되는 설명변수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설명변수를 제거시키는 방법을 반복하되 더 이상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설명변수가 없을 때까지 추가와 제거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의 제 1절에서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제 2절에서는 연구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자료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위한 척도를 구성하고,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여,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른 재무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재무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정현(2011)의 재무관리역량 척도 연구에 활용된 자료로 척도 단순화 과정 및 노인소비자와 일반소비자의 비교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단순화된 척도의 문항을 노인소비자의 특성에 맞추어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이다.

김정현(2011)은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화를 통하여 체계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재무관리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산정하였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는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세 가지의 구성요인과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

결정 여섯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154개의 내용요소 중 136개를 선정하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총 106개 문항을 선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현(2011)의 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조사 자료는 만 20세 이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소비자 1,045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15일 ~ 9월 27일에 걸쳐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자료의 내용은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인구통계적 정보, 재무적 특성 정보,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및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척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는 106문항을 모두 활용하였고, 일반소비자와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화를 통하여 선정된 43문항을 활용하였다⁶.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단순화된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온라인 서베이인데, 온라인 서베이가 가능한 65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조사대상은 성별과 지역별 인구비율을 근거로 할당표집하였다. 자료수집결과 150명에 대한 자료를 얻었고 이에 소요된 기간은 2012년 5월 10일 ~ 16일에 걸친 7일이다⁷.

⁶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INR plus에서 실시하였다.

⁷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서 실시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노인소비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통계상의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문제 1]은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소비자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단순화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김정현(2011)의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척도를 단순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PASW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인소비자의 특성에 맞추어 단순화된 척도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에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여 노인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전문 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요청하여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이며 각 구성요인 및 하위영역별로 점수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노인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와 재무관리역량 총점은 어떠한 수준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PASW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3]은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재무적 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내용이다.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PASW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집단 간 비교분석인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제 4 장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본 장의 제 1 절에서는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소비자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단순화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제 2 절에서는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노인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제 3 절에서는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재무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 1 절 재무관리역량 척도 구성

김정현(2011)의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기본적인 구성요인 및 하위영역을 지키되 보다 적은 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장 잘 충족하는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척도를 단순화하고 이렇게 추출된 문항들을 노인소비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1. 김정현(2011)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척도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존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현(2011)은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척도 문항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구성요인과 하위영역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개념틀을 구성한 후 이 개념틀의 내용을 구성하는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우재룡(2006), 최현자 외(2003), 최현자, 최은진(2005), FSA(2005), Jump\$start(2007), Parrotta & Johnson(1998) 등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154개의 내용요소를 추출한 후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136개의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Churchill의 다항목척도 개발 과정(1979)에 따라 내용요소에 대응하는 문항을 구성한 다음 안면타당도 및 표면타당도, 예비조사, Nunnally(1978)의 측정타당화 과정을 통하여 검증된 척도를

완성하였다. 김정현(2011)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로 총 10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재무관리태도 22문항, 재무관리지식 44문항, 재무관리기능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척도 단순화 과정

척도 단순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이다.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으로 척도 단순화를 시행한 결과, 상관계수를 이용한 방법은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구성요인별로 선택되는 문항이 지나치게 고르지 못하였다.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척도 단순화를 실시한 결과, 탈락하는 문항의 수가 적어 총 70문항 이상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 단순화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단계선택 회귀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를 각 영역인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으로 두고, 독립변수를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개별 문항으로 구성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전체 재무관리역량 점수로 놓고 독립변수를 모든 개별 문항으로 구성한 뒤 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구성요인별 개별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두고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독립변수로 구성한 뒤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력이 50%이상(수정된 R제곱 .05 이상)인 첫 번째 모형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재무관리태도의 22문항 중 6문항이 선정되었고, 재무관리지식의 44문항 중 14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재무관리기능의 40문항 중 6문항이 선정되었다. 총 106문항 중 26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문항의 분포는 다음의 <표4-1>와 같다.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문항을 선정한 결과, 상관계수를 활용한 방법에 비하여 각 구성요인별로 선정된 문항의 수가 고르게 분포하였다. 요인분석을 활용했을 때 선정된 문항 수가 다소 많았던 것에 비하여 선정된 문항의 수도 26문항으로 적절하였다.

<표4-1>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1

하위영역 구성요인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 기능	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1	2	1	4
신용과 부채관리	1	2	1	4
저축과 투자	1	3	1	5
위험관리와 보험	1	2	1	4
노후설계	1	3	1	5
금융시장환경과 재무 관리의사결정	1	2	1	4
계	6	14	6	26

다음으로 재무관리역량점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독립변수를 모든 문항으로 구성한 뒤 회귀분석을 하였다. 전체역량점수에 대한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추가 시 증가되는 설명력이 0.002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106개의 문항 중 26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문항의 분포는 <표4-2>와 같다. 총 26개의 문항은 전체 재무관리역량에 대하여 약 95%의 설명력을 가졌다(수정된 R제곱 .950). 총 문항 수가 26문항으로 문항 수가 적정하게 나타났다.

<표4-2>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2

하위영역 구성요인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 기능	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1	0	2	3
신용과 부채관리	2	1	3	6
저축과 투자	1	0	4	5
위험관리와 보험	2	0	1	3
노후설계	2	1	2	5
금융시장환경과 재무 관리의사결정	1	1	2	4
계	9	3	14	26

최종적으로 단계선택 회귀분석에서 구성요인별 개별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두고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독립변수로 구성한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된 26문항과 재무관리역량점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독립변수를 모든 문항으로 구성한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된 26문항을 선정하였다. 중복되는 문항들을 고려하여 총 44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구성요인 별 분포를 보면 재무관리태도 13문항, 재무관리지식 14문항, 재무관리기능 17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하위영역별 분포 역시 수입과 지출의 관리 6문항, 신용과 부채관리 7문항, 저축과 투자 7문항, 위험관리와 보험 8문항, 노후설계 8문항,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7문항으로 고르게 선정되었다. 이 때, 재무관리태도 13문항의 크론바하 알파는 .83이며, 재무관리기능 17문항의 크론바하 알파는 .92이다.

3. 노인소비자를 위한 재무관리역량 척도 재구성

척도 단순화를 통하여 선정된 44문항들을 노인소비자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재무관리태도 문항 중에서 ‘나는 아직은 은퇴기를 대비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지 않다’ 문항은 거의 대부분이 은퇴를 맞이한 노인소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기존의 문항의 표현 중에서 영어식 표현과 같은 노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과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표현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재무관리태도 문항 중에서 ‘나는 비교구매와 계획적 지출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라는 문항을 ‘나는 비교구매와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라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재무관리기능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리플렛이나 웹 사이트’라는 표현을 ‘전단지나 인터넷’으로 바꾸어 노인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관리기능의 ‘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탐색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루트’라는 표현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재무관리지식 문항 중에 기회비용에 대한 문항인 ‘세뱃돈을 써버리는 대신 저축을 했다면 나에게 기회비용은 0이다’ 문항은 대부분 세뱃돈을 받아서 쓸 일이 거의 없는 노인소비자들의 상황과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이 노인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을 ‘공돈이 생겼을 때 그냥 써 버리는 대신 저축을 했다면 내가 포기하는 것은 없다’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재무관리지식 문항 중 ‘예금의 세금우대 한도는 일반인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가 더 낮다’라는 표현은 문항 자체가 다소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인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적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관리지식 문항 중 ‘적립식펀드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위험분산효과가 크다’에 대해서는 ‘적립식펀드 투자’와 ‘위험분산

효과'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적립식 펀드 투자에 대한 부가설명을 하고 위험분산효과를 풀어서 설명하여 '적립식펀드 투자(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덜 위험하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하여 물어보기에 표현이 다소 길거나 어렵다고 판단된 문항들은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재무관리지식 문항 중에서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개인 재산에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표현은 '금융시장에서 문제를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로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재무관리기능 문항의 표현 중에서 '차기'는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수정하고, '세금액수와 납부시기'를 '세금이 얼마인지와 언제 내야 하는지'로 변경하였으며 '투자 안 선택 시'라는 표현은 '투자 안을 선택할 때'로 수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3문항은 다음의 <표4-3> 및 <표4-4>와 같다.

재무관리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항과 긍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분석 시 역코딩을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태도 수준이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며, 크론바하 알파는 0.445이다.

재무관리지식은 정답이 있는 O, X문항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4개 중 정답을 맞춘 문항 수로 재무관리지식 점수를 측정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재무관리기능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된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기능 수준이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며, 크론바하 알파는 0.868이다.

<표4-3> 최종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문항 분포

하위영역 구성요인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 기능	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2	2	2	6
신용과 부채관리	2	2	3	7
저축과 투자	2	3	4	9
위험관리와 보험	3	2	2	7
노후설계	1	3	3	8
금융시장환경과 재무 관리의사결정	2	2	3	7
계	12	14	17	43

<표4-4> 최종 선정된 재무관리태도 문항

재무관리태도		
하위영역	내용요소	문항
수입과 지출의 관리	비교구매 및 계획 구매에 대한 태도	나는 비교구매와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예산의 중요성 인식	나는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운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도 향상 노력의 필요성 인식	나는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
	소비자파산에 대한 태도	나는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저축과 투자	저축의 필요성 인식	나는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저축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 (-)
	현재소비지향 vs. 미래소비지향	가진 돈을 아껴서 불리는 것보다, 지금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나에게 더 기분 좋은 일이다. (-)
위험관리와 보험	재정적 위험대비의 중요성 인식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보험에 대한 태도	나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
	종신보험에 대한 태도	나는 가구주의 사후를 대비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하다. (-)
노후설계	은퇴소득의 다양화 필요성 인식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책임감	나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재무목표설정의 중요성 인식	재무관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도달할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표시 항목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며, 분석시 역코딩 됨.

<표4-4 계속> 최종 선정된 재무관리역량 척도 문항

재무관리지식		
하위영역	내용요소	문항
수입과 지출의 관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실질소득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x)
	지출결정과 기회비용의 이해	공돈이 생겼을 때 그냥 써 버리는 대신 저축을 했다면 내가 포기하는 것은 없다. (x)
신용과 부채 관리	신용을 이용한 현재 요구충족과 미래소득 간 관계 이해	신용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미래의 소득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율의 이해	할부를 이용하거나 연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o)
저축과 투자	세금우대제도 이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인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적다. (x)
	위험과 자산분산의 이해	자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으면 변동성이 커져서 위험도도 높아진다. (x)
	간접투자의 이해	적립식펀드 투자(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덜 위험하다. (o)
위험관리와 보험	보험의 개념과 기본원리 이해	보험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o)
	위험관리전략 이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보험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 (x)
노후설계	은퇴설계프로세스의 이해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x)
	연금의 이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x)

	은퇴기 소득원 분석의 이해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x)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	금융시장에서 문제를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x)
	재무설계프로세스의 이해	재무 설계안을 제시하기 전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재무목표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o)

※ ()안의 표시는 O/X 문항의 정답임.

<표 4-4 계속> 최종 선정된 재무관리역량 척도 문항

재무관리기능		
하위영역	내용요소	문항
수입과 지출의 관리	월말/연말 지출을 결산할 수 있는 능력	나는 월말 혹은 연말에 지출 내역을 결산하고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연간 세금납부 계획 능력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와 언제 내야 하는지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신용과 부채 관리	부채 상환 계획 수립 능력	나는 신용을 사용할 때 원리금을 계산해보고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신용카드의 합리적 사용 능력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이자 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체에 대한 대처 능력	내가 사용한 신용이 현재 연체 상태에 있다면, 나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
저축과 투자	저축과 투자 관련 정보탐색 능력	나는 각종 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 저축 및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어려움 없이 탐색할 수 있다.
	적절하게 배분된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나는 나의 재산 중 예금, 주식, 부동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목표에 맞춘 저축안과 투자안 선택 능력	나는 나의 투자 목표(예,단기여유자금 운용-자녀교육자금마련)에 맞는 투자 상품(예,CMA-적립식펀드)을 선택할 수 있다.

	만기예상금액 계산 능력	투자 안을 선택할 때, 나는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
위험관리와 보험	보험 상품 구매 가능 능력	지금 당장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연금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면, 나는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보험 상품 관련 정보탐색능력	보험 가입 시, 나는 보상범위와 한도, 효력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노후설계	은퇴준비실행 능력	나는 나의 은퇴준비에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은퇴소득원 다양화 실행 능력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수 있다.
	노후설계 전문가 활용 능력	나는 노후설계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재무 설계사, 금융업계 직원 등)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금융상품 정보수집능력	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
	재무상태 파악 능력	나는 우리 집의 전반적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목표에 따른 재무관리활동 수행 능력	특정한 재무목표가 세워지면, 나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관리전략을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

제 2 절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남성 76명(50.7%), 여성 74명(49.3%)로 이루어졌다.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 18%(27명), 고졸 이하 36.7%(55명), 대학교 재학 이상 45.3%(68명)로 분포되어 다소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며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82%, 123명)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4-5>와 같다.

<표4-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50)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76(50.7)
	여	74(49.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7(18.0)
	고졸 이하	55(36.7)
	대학교 재학 이상	68(4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3(82.0)
	배우자 없음	27(18.0)

1.2.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재무적 특성은 <표4-6>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한 달 약 307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예금,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의 합으로 세금을 제외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자산은 평균적으로 약 6억 2813만원이었으며, 그 중 금융자산은 약 1억 972만원으로

저축, 주식,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조사대상자들의 월소득, 자산 및 금융자산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평균 월소득인 143만원(2010년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과 자산 총액인 2억 7,535만원 및 금융자산 3,885만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4-6>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단위: 만원)

	평균 (SD)	중위수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월소득	306.87 (197.90)	300	300	0	1,300
월생활비	195.97 (107.22)	200	200	0	600
총자산	62,813.33 (89,526.97)	40,000	30,000	0	900,000
금융자산	10,972.67 (14,120.70)	5,000	0	0	100,000
부채	1,330.67 (4,382.76)	1,330	0	0	40,000
가계수지*	0.72 (0.28)	0.75	1.00	0.10	1.50
유동성**	0.20 (0.19)	0.15	0.00	0.00	1.00

* 가계수지 지표 =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 유동성 지표 = 금융자산/총자산

조사대상자 중 대다수(80.7%, 121명)는 부채가 없으며 19.3%(29명)은 갚아야 할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부채 총액은 약 1,331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평균 부채 3,477만원(2011년 3월 기준; 통

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으로 월소득, 월생활비, 총자산, 금융자산 등과 더불어 재무비율지표를 살펴보았다. 가계수지지표는 대표적인 재무비율로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생활비의 비율로서 월평균소비성향을 나타내며 생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장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최현자 외(2003)에 의하면 가계수지지표는 0.9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정한데 조사대상자들의 가계수지지표는 평균 0.72로 나타나 적정한 수준이었다.

유동성지표는 총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로 노년가계는 주로 자산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유동성지표가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유동성지표는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최현자 외(2003)는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유동성지표는 0.20로 나타나 준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집단에 비하여 고학력자가 많고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의 대상자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노인소비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이 다소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다.

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실태

2.1.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원점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각 하위영역별 개별문항을 살펴보았다. 개별 문항들은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코딩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태도, 지식, 기능이 잘 갖춰진 것을 의미한다.

① 재무관리태도 원점수

재무관리태도는 12개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점수의 범위는 12점

~ 60점으로 재무관리태도의 원점수 평균은 45.68점으로 나타났다.

<표4-7>은 재무관리태도의 개별 문항에 대한 5점 척도의 원점수 평균을 정리한 것이다. 재무관리태도 개별 문항의 평균은 3점대와 4점대에 분포하였다.

재무관리태도를 묻는 문항들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영역의 ‘재무관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도달할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다는 것은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재무목표설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관리태도를 묻는 문항들 중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위험관리와 보험영역의 ‘내 재산과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이다. 이 문항은 재정적 위험대비에 대한 문항으로 이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다는 것은 조사응답자들이 재정적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무관리태도와 관련한 문항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노후설계의 문항이다. 해당 문항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로 이 문항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조사대상자들이 재무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은퇴소득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은 저축과 투자영역의 ‘가진 돈을 아껴서 불리는 것보다 지금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나에게 더 기분 좋은 일이다’이다. 이 문항은 현재소비지향과 미래소비지향에 대한 문항으로 미래소비지향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역코딩을 하였으며 미래소비지향일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평균 점수가 중간 점수인 3점 이상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미래소비를 더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하여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은 현재소비를 지향하는 응답자들이 다수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가지 하위 영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영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1문항으로 구성된 노후

설계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4-7>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개별문항별 평균

재무관리태도		평균 (SD)
수입과 지출의 관리	나는 비교구매와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3.93 (1.00)
	나는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운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03 (0.98)
	하위영역 평균	3.98
신용과 부채관리	나는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	3.80 (1.23)
	나는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3.93 (1.29)
	하위영역 평균	3.87
저축과 투자	나는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저축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 (-)	3.97 (1.31)
	가진 돈을 아껴서 불리는 것보다, 지금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분 좋은 일이다. (-)	3.37 (1.30)
	하위영역 평균	3.67
위험관리 와 보험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4.19 (0.96)
	나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	3.51 (1.23)
	나는 가구주의 사후를 대비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웬지 꺼림칙하다. (-)	3.54 (1.12)
	하위영역 평균	3.75
노후설계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3.13 (1.31)
	하위영역 평균	3.13
금융환경 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나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4.03 (1.04)
	재무관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도달할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25 (0.87)
	하위영역 평균	4.14

※ (-)표시 항목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며, 분석시 역코딩 됨.

② 재무관리지식 원점수

재무관리지식의 점수는 14개의 O/X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오답 0점, 정답 1점으로 처리하였다. 재무관리지식 원점수는 0점 ~ 1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재무관리지식의 평균 점수는 8.77점이다.

<표4-8>는 재무관리지식의 개별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재무관리지식의 개별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10%대부터 90%대까지 분포하였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영역의 ‘재무 설계안을 제시하기 전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재무 목표와 현재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이다. 이 문항의 정답률이 높다는 것은 조사대상자들이 재무설계프로세스 중 가장 우선되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대체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정답률이 50% 미만인 재무관리지식 문항은 총 세 문항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문항은 수입과 지출의 관리영역 중 ‘공돈이 생겼을 때 그냥 써 버리는 대신 저축을 했다면 내가 포기하는 것은 없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14.7%로 가 같은 하위영역내의 다른 문항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이는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수입과 지출의 관리영역 중에서도 지출결정과 기회비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재무관리지식의 개별 문항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저축과 투자영역의 ‘적립식펀드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덜 위험하다’이다.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35.3%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간접 투자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 미만의 정답률을 보인 또 다른 문항은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영역의 ‘금융시장에서 문제를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이다. 해당 문항의 정답률은 42.0%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 평균 정답률을 살펴보면, 노후설계영역이 가장 높고 수입과 지출의 관리영역이 가장 낮았다.

<표4-8>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지식 개별문항별 정답률

재무관리지식		정답률 (%)
수입과 지출의 관리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실질소득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x)	64.7
	공돈이 생겼을 때 그냥 써 버리는 대신 저축을 했다면 내가 포기하는 것은 없다. (x)	14.7
	하위영역 평균	39.7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미래의 소득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54.7
	할부를 이용하거나 연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o)	88.7
	하위영역 평균	71.7
저축과 투자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인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적다. (x)	54.7
	자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으면 변동성이 커져서 위험도도 높아진다. (x)	74.7
	하위영역 평균	64.7
	적립식펀드 투자(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덜 위험하다. (o)	35.3
	하위영역 평균	54.9
위험관리와 보험	보험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o)	80.0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보험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 (x)	56.7
	하위영역 평균	68.4
노후설계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x)	50.7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x)	85.3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x)	84.3
	하위영역 평균	73.4
금융환경과 재무관	금융시장에서 문제를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x)	42.0

리의사결정	재무 설계안을 제시하기 전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재무목표와 현재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o)	91.3
	하위영역 평균	66.7

※ ()안의 표시는 O/X 문항의 정답임.

③ 재무관리기능 원점수

재무관리기능은 17개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관리기능의 원점수는 17점 ~ 85점에 분포한다.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기능은 평균 65.74점으로 나타났다.

기능역량의 각 하위영역별 문항에 대한 5점 척도의 원점수 평균을 정리하면 <표4-9>와 같다.

재무관리기능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개별문항은 신용과 부채관리영역의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이자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4.47점으로,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재무관리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합리적 사용능력이 다른 것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관리기능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개별문항은 노후설계영역의 ‘나는 노후설계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재무설계사, 금융업계 직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3.05점으로 중간 점수인 3점을 겨우 넘은 정도이다. 노후설계영역의 다른 문항인 ‘나는 나의 은퇴준비에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은 3.93점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노후설계에 있어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보다 자신이 실행하는 것을 더 잘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영역의 첫 번째 문항인 ‘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응답자 평균 3.61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영역 내 ‘나는 우리 집의

전반적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문항의 평균 점수는 4.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재무관리에 있어서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자신의 능력을 더 낮게 여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신용과 부채관리영역의 기능이 가장 높고, 노후설계영역이 가장 낮았다.

<표4-9>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기능 개별문항별 평균

재무관리기능		평균 (SD)
수입과 지출의 관리	나는 월말 혹은 연말에 지출 내역을 결산하고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3.67 (1.08)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와 언제 내야 하는지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4.27 (0.85)
	하위영역 평균	3.97
신용과 부채관리	나는 신용을 사용할 때 원리금을 계산해보고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4.09 (1.04)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이자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4.47 (0.75)
	내가 사용한 신용이 현재 연체 상태에 있다면, 나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	4.39 (0.90)
	하위영역 평균	4.32
저축과 투자	나는 각종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 저축 및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어려움 없이 탐색할 수 있다.	3.66 (1.18)
	나는 나의 재산 중 예금, 주식, 부동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3.77 (1.09)
	나는 나의 투자 목표(예, 단기여유자금 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에 맞는 투자 상품(예, CMA -적립식펀드)을 선택할 수 있다.	3.66 (1.10)
	투자 안을 선택할 때, 나는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	4.07 (0.95)
	하위영역 평균	3.79

위험관리와 보험	지금 당장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자동차 보유자의 경우),연금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면, 나는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3.81 (1.06)
	보험 가입 시, 나는 보상범위와 한도, 효력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3.73 (1.05)
	하위영역 평균	3.77
노후설계	나는 나의 은퇴준비에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3.93 (0.98)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수 있다.	3.47 (0.98)
	나는 노후설계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재무 설계사, 금융업계 직원 등)를 활용할 수 있다.	3.05 (1.12)
	하위영역 평균	3.48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 사결정	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	3.61 (1.05)
	나는 우리 집의 전반적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4.30 (0.83)
	특정한 재무목표가 세워지면, 나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관리전략을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	3.79 (0.96)
	하위영역 평균	3.90

④ 재무관리역량 원점수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원점수를 합한 것으로 그 범위는 29점 ~ 159점이며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원점수 평균은 111.42점으로 나타났다.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원점수의 분포는 <표4-10>과 같다.

<표4-10>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원점수

(N =150)

기술통계량 구성요인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재무관리태도 (12점 ~ 60점)	45.68 (5.15)	32.00	57.00
재무관리지식 (0점 ~ 14점)	8.77 (1.78)	4.00	13.00
재무관리기능 (17점 ~ 85점)	65.74 (9.68)	38.00	85.00
재무관리역량 (29점 ~ 159점)	111.42 (12.37)	76.00	136.00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원점수 및 정답률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점수만으로는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거나 구성요인들 및 하위영역들 상호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2.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백분위 점수

원점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점수를 표준화하였다. 각 구성요인별 및 하위영역별 점수를 0점 ~ 100점 사이에 분포하도록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하여 역량 점수의 수준을 파악하고 구성요인 및 하위영역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하여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백분위로 표준화된 점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text{백분위 표준점수} = [100 * (\text{관측값} - \text{최저점})]/(\text{최고점} - \text{최저점})$$

... 식 (1)

<표4-11>은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 및 구성요인별 백분위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하위영역별 총점수를 살펴보면, 신용과 부채관리가 75.3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위험관리와 보험, 저축과 투자, 노후설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영역의 경우 62.78점으로 다른 하위영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11> 하위영역 및 구성요인별 재무관리역량 수준

(N=150)

구성요인 하위영역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하위영역별 총역량	일반소비자 (김정현, 2011)
수입과 지출의 관리	74.42 (19.07)	39.67 (28.55)	74.25 (20.54)	62.78 (13.29)	65.53 (11.46)
신용과 부채관리	71.58 (24.79)	71.67 (30.88)	82.89 (15.41)	75.38 (15.23)	61.29 (11.15)
저축과 투자	66.83 (25.87)	54.89 (29.19)	69.75 (20.40)	63.82 (14.67)	60.64 (11.27)
위험관리와 보험	68.72 (18.64)	68.33 (30.33)	69.25 (23.42)	68.77 (14.90)	60.09 (10.94)
노후설계	53.33 (32.73)	73.33 (23.81)	62.11 (19.68)	62.93 (15.06)	56.61 (12.20)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78.42 (18.31)	66.67 (29.91)	72.50 (19.42)	72.53 (14.10)	61.51 (11.23)

※ 각 구성요인 및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이상의 연구결과는 김정현(2011)의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저조한 점수를 보인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영역은 김정현(2011)의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이다. 수입과 지출의 관리는 개인 및 가족의 현금의 흐름에 관한 내용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소득과

지출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다른 영역의 역량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구성요인역량 점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과 지출의 경우 태도역량이 가장 높고 기능역량은 그 다음으로 태도와 비슷한데, 지식역량의 경우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영역이 영역 총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이유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 중 지식역량의 점수가 39.6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용과 부채관리의 경우 기능역량이 82.8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태도역량과 지식역량은 약 71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저축과 투자의 경우 기능역량, 태도역량, 지식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식역량의 점수가 54.8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위험관리와 보험의 경우 기능역량, 태도역량, 지식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세 역량 모두 약 68점에서 69점 사이에 분포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노후설계의 경우 지식역량, 기능역량, 태도역량의 순으로 나타나, 타 영역들과 다소 다른 구성요인별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지식역량이 73.33으로 다른 두 역량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태도역량은 53.33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의 경우 태도역량, 기능역량, 지식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별로 하위영역의 총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태도역량의 경우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영역이 78.4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수입과 지출의 관리영역, 신용과 부채관리영역이 각각 74.42점, 71.5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험관리와 보험영역이 68.72점, 저축과 투자영역이 66.83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노후설계영역은 53.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재무관리태도에 있어 금융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노후설계에 대한 역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식역량의 경우 노후설계영역이 73.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신용과 부채관리영역, 위험관리와 보험영역,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영역이 순서대로 71.67점, 68.33점, 67.67점이었다. 저축과 투자영역이 54.89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관리영역이 39.67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기능역량의 경우, 신용과 부채관리영역이 82.89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수입과 지출의 관리영역이 74.25점,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영역이 72.50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저축과 투자영역이 69.75점, 위험관리와 보험영역이 69.25점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설계영역이 62.1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별 총점을 백분위 점수로 산출한 것은 <표4-12>와 같다.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68.17점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기능점수가 71.68점으로 가장 높고 태도점수는 70.17점으로 그 다음이고 지식점수는 62.67점으로 가장 낮다. 중위수 점수를 비교하면, 태도점수는 70.83점이며, 지식점수는 64.29점이고 기능점수는 72.06점으로 나타나 지식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노인소비자들은 재무관리에 있어 태도역량이나 기능역량에 비하여 지식역량이 부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표4-1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백분위 점수

(N=150)

기술통계량 구성요인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재무관리태도 (0점 ~ 100점)	70.17 (10.74)	41.67	93.75
재무관리지식 (0점 ~ 100점)	62.67 (12.70)	28.57	92.86
재무관리기능 (0점 ~ 100점)	71.68 (14.24)	30.88	100.00
재무관리역량 (0점 ~ 100점)	68.17 (8.67)	47.21	87.94

<표4-13>는 노인소비자와 일반소비자와의 재무관리역량 점수의 구성요인별 경향을 비교한 것이다

<표4-13> 노인소비자와 일반소비자의 구성요인별 점수 경향
(단위: 점, 만점=100점)

구분	노인소비자 (N=150)		일반소비자 (N=1,045)	
1순위	재무관리기능	71.68 (14.24)	재무관리지식	67.95 (21.44)
2순위	재무관리태도	70.17 (10.74)	재무관리태도	63.32 (13.55)
3순위	재무관리지식	62.67 (12.70)	재무관리기능	58.80 (14.29)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점수와 김정현(2011)의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106문항 중 본 연구가 활용한 43문항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점수를 비교하였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지식역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태도역량, 기능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구의 노인소비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능역량이 가장 높고, 태도역량, 지식역량의 순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점수 분포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은 다른 역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능역량이 부족한 반면, 본 연구의 노인소비자들은 다른 역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식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 성별, 최종학력, 배우자유무를 살펴보았다. 성별과 배우자유무는 t검증을 실시하였고, 최종학력은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4-1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 최종학력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4>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노인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단위: 점, 만점=100점)

항목	집단구분(%)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
성별	남 (50.3)	72.20	61.75	73.20	69.05
	여 (49.7)	68.07	63.61	70.11	67.27
	t값	2.392*	-0.898	1.332	1.264
최종학력	중졸 이하 (18.0)	66.82	61.90	65.14 b	64.62
	고졸 이하 (36.7)	69.81	63.38	72.06 a	68.42
	대학교 재학 이상 (45.3)	71.78	62.40	73.96 a	69.38
	F값	2.143	0.149	3.886*	3.0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2.0)	70.65	62.14	72.02	68.27
	배우자 없음 (18.0)	67.98	65.08	70.10	67.72
	t값	1.171	-1.092	0.635	0.298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라서는 태도역량에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태도역량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김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기능역량을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기능역량에서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기능역량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계선자, 2000 등), 본 연구의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재무관리 김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중 학력에 따라 재무관리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모두에서 차이를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모두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지식역량을 제외한 태도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지식역량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김정현(2011)의 연구에서

결혼상태에 따라 지식역량 점수에 차이가 있어 기혼자의 경우 지식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3 절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재무 복지

재무 복지의 수준은 객관적 재무 복지와 주관적 재무 복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재무 복지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월소득, 총자산, 가계수지지표, 유동성지표를 사용하였으며⁸ 주관적 재무 복지는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1.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 복지간의 상관관계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이 재무 복지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4-15>은 재무관리역량의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각각과 재무관리역량 총점과 재무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4-15>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 복지와의 상관관계

	태도 역량	지식 역량	기능 역량	역량 총점
월소득	.205*	.218**	.312**	.362**
총자산	.224**	.164*	.199*	.281**
가계수지	-.063	-.221**	-.197*	-.243**
유동성	.053	.241**	.110	.203*
생활수준 만족도	.073	.083	.206*	.183*
재정상태 만족도	.060	.137	.231**	.218*

* p<.05, ** p<.01, *** p<.001

⁸ 월소득은 가계재무상태 평가를 위하여 중요한 지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지표(최현자 외, 2003)이며, 소득수준은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정명숙, 2007)이다. 또한, 총자산은 노인가계 등 근로소득이 중단된 가계에게 가계재무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최현자, 2003)이다. 재무비율 중 노인가계에 중요한 가계수지지표와 유동성지표(유우정 외, 2007; 최현자 외, 2003)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태도역량의 경우 월소득, 총자산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지식역량의 경우 월소득, 총자산, 유동성지표와 정(+)의 관계, 가계수지지표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기능역량의 경우 월생활비, 월소득, 총자산과 정(+)의 관계, 가계수지지표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생활수준만족도 및 재정상태만족도 모두 기능역량과 역량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객관적 재무 복지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수준별로 재무 복지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점수에 따라 상, 중, 하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4-16>은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객관적 재무 복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4-16>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객관적 재무 복지

항목	집단구분(%)	월소득 (만원)	총자산 (만원)	가계수지	유동성	
태도 역량	상(77.08점 이상)	(30.7)	322.73	84,787.88	0.7435	0.1896
	중(66.67점 이상 77.08점 미만)	(34.7)	345.42	70,406.78	0.6896	0.2232
	하(66.67점 미만)	(34.7)	258.62	42,586.21	0.7443	0.1868
	F값		3.030	2.750	0.651	0.602
	지식 역량	상(71.43점 이상)	(23.3)	404.81 a	94,925.93	0.6025 b
중(57.14점 이상 71.43점 미만)		(43.3)	289.72 b	58,636.36	0.7329 a	0.1803 b
하(57.14점 미만)		(33.3)	274.43 b	48,542.86	0.7920 a	0.1670 b
F값			4.289*	2.318	3.599*	6.215**
기능 역량		상(79.41점 이상)	(34.0)	359.49 a	78,857.14	0.7072 ab
	중(67.65점 이상 79.41점 미만)	(33.3)	327.33 a	72,800.00	0.6521 b	0.1727
	하(67.65점 미만)	(32.7)	244.38 b	40,750.00	0.7919 a	0.1924
	F값		5.022**	2.836	3.173*	1.535
	역량 총점	상(72.60점 이상)	(34.7)	370.63 a	86,145.83 a	0.6680
중(65.62점 이상 72.60점 미만)		(33.3)	317.00 a	64,100.00 ab	0.7090	0.1870
하(65.62점 미만)		(32.0)	238.27 b	40,038.46 b	0.7878	0.1681
F값			6.067**	3.426*	2.314	2.576

* p<.05, ** p<.01, *** p<.001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및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객관적 재무복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재무관리역량 총점의 경우 월소득과 총자산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재무관리지식 역량은 집단별로 월소득, 가계수지지표, 유동성지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재무관리기능 역량은 월소득과 가계수지지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월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자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지식과 재무관리기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계수지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관리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유동성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 및 구성요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객관적 재무복지에 차이가 있어 재무관리역량이 높은 집단일 경우 객관적 재무복지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주관적 재무 복지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수준별로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점수에 따라 상, 중, 하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4-17>과 같다.

<표4-17>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주관적 재무 복지

(N=150)

항목	집단구분(%)	생활수준 만족도	재정상태 만족도
태도역량	상(77.08점 이상) (30.7)	3.33	3.30
	중(66.67점 이상 77.08점 미만) (34.7)	3.25	3.17
	하(66.67점 미만) (34.7)	3.19	3.17
	F값	0.312	0.332
지식역량	상(71.43점 이상) (23.3)	3.63 a	3.59 a
	중(57.14점 이상 71.43점 미만) (43.3)	3.11 b	3.09 b
	하(57.14점 미만) (33.3)	3.29 b	3.17 b
	F값	4.165*	4.062*
기능역량	상(79.41점 이상) (34.0)	3.39	3.37
	중(67.65점 이상 79.41점 미만) (33.3)	3.31	3.27
	하(67.65점 미만) (32.7)	3.07	3.00
	F값	2.097	2.913
역량총점	상(72.60점 이상) (34.7)	3.48	3.52 a
	중(65.62점 이상 72.60점 미만) (33.3)	3.14	3.04 b
	하(65.62점 미만) (32.0)	3.13	3.06 b
	F값	2.084	5.766**

* p<.05, ** p<.01, *** p<.001

구성요인별 역량을 살펴보면, 재무관리태도역량의 경우 그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재무관리지식역량의 경우 집단별로 생활수준 만족도 및 재정상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재무관리지식역량이 높을수록 생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기능역량을 살펴보면, 재무관리기능역량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모두 아우르는 재무관리역량 총점의 경우, 재무관리역량 총점에 따라 재정상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재무관리역량 총점이 높은 집단일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장의 제 1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절에서는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를 위한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재무관리역량 척도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노인소비자가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통하여 44개 문항을 선정한 후, 선정된 문항들을 노인소비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노인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구성하였다. 단순화된 척도는 노인소비자와 같이 문항 이해나 오랜 시간 설문이 어려울 수 있는 소비자들을 조사할 때 용이하며, 문항수가 작아 한 연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척도수가 늘어나므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소화된 척도를 이용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17점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세 가지 구성요인 중에서 재무관리지식 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재무관리에 있어 태도역량이나 기능역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식역량이 부족한 편임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역량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더 높은 태도역량을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기능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역량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무관리역량 요인 중 실행과 관련이 있는 기능역량은 교육과 학습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특히 학력이 낮은 노인소비자들에게는 실천적 영역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른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적 재무복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 총점 및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들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적 재무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재무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재무관리역량이 노인소비자의 재무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제 2 절 후속 연구에의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150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였다. 재무관리역량의 연구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온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의 표본들은 모집단에 비하여 자산이 상당히 많고 학력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의 우리나라 노인소비자라는 집단을 아우르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표본의 수를 늘리고 보다 모집단에 가까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 조사 방법에서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측정에는 면대면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문항을 전화로 물어 응답을 받았다. 연구대상인 노인소비자의 특성상 온라인 조사보다 전화조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가장 선호되는 조사방법인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온라인 조사가 가능한 노인소비자들은 전체 노인소비자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비록 훈련된 전화조사 전문가들이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재무관리역량 문항들을 전화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면대면조사와 같이 노인소비자가 문항 이해를 보다 더 쉽게 하는 조사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소비자를 단순히 65세 이상인 소비자로 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소비자 집단 내에서도 세부적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을 구분한 세분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역량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무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및 영향력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여 노인소비자에 대한 재무관리역량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재무관리역량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무관리역량과 관련하여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과제로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재무관리역량을 다루는 연구에서 노인소비자는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과제로 언급되어 온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역량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노인소비자를 위하여 구성된 재무관리역량 척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교육 및 금융 교육을 실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 및 재무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소비자의 재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강상진(2002) “회귀분석의 이해”, 교육과학사.

권경득, 유성호, 이모영, 허태희(2006), “사회과학통계분석 - SPSS의 활용과 적용”, 법문사.

계선자, 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49.

계선자(2000)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95-111.

공정거래위원회(2008)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 보도자료.

기백석(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5(2), 298-307.

김경자, 박명숙, 정운영(2002), “가계 재무상태와 재무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28.

김경자, 이기춘(1986)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한 저소득층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53-66.

김병연(2009)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

안”, 한국금융연구원.

김영근(2009) “고령친화용품의 소비와 관련된 노인 소비자 행태 특성”, 한국노년학회, 29(1), 21-35.

김정현(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현, 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박영순(2006) “노인소비자의 주요 소비자문제와 상담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배순영(2011) “금융소비자역량과 소비자교육정책”, 2011 소비자 분야 통합학술대회 자료집, 49-54.

손상희(2000) “소비자재무 및 복지 연구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학연구, 11(2), 103-121.

서정희(2011) “노인소비자의 구매문제 인식 유형과 관련변수: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65-376.

서은숙(2008)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대한 태도 및 소비가치가 합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은국(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지, 25(1), 95-113.

- 성태제(2003)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학지사.
- 심영(2005) “정보사회의 노인 소비자를 위한 생산적 복지 지향의 소비자 교육 방안”, 소비자학연구, 16(1), 151-178.
- 안창희, 정순희(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7(2), 197-219.
- 오영희(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3(4), 1045-1063.
- 오종윤(2011)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우정, 배미경(2007) “재정비율을 이용한 노인가계의 재정 상태 평가”, 대한가정학회, 45(4), 17-28.
- 이기춘(1985) “소비자 능력 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옥(2010) “도시 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적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65-179.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운정(2010) “노인 소비자를 위한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265-273.
- 정명숙(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 249-274.

정운영, 황덕순(2006) “대학생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99-1014.

조동필, 양세경, 배미경(2007)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33-348.

주소현(2011) “중고령층 금융소비자의 펀드투자에 관한 이해력”, 소비자문제연구, 40, 47-69.

차경옥(2007)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 및 재무지식 수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1-20.

최현자, 김정현(2010)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 일반소비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21(3), 83-105.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0.

최혜경(2011)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통한 한국 노인들의 소비자 욕구 탐색”,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23-38.

통계청(2009) “2009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0) “2010 가계금융조사”

통계청(2011) “2011 가계금융조사”

한국금융연구원(2009.11)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 소비자 역량강화”, 주간금융브리프, 18(44), 8-9.

한국금융연구원(2007.03) “미국의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대응”, 주간금융브리프, 16(11), 22-23.

한국소비자원(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한국소비자원.

황진자(2011)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고령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2011 소비자 분야 통합학술대회 자료집, 55-61.

황진자(2012)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고령소비자보호 방안”, 소비문제연구, 41, 171-183.

홍두승(2000)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해외 문헌]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2005)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Consumer Research Series, 37.
- Lusardi, A. & Mitchell, O. S. (2007a)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 205–224.
- Lusardi, A. & Mitchell, O. S. (2007b),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reparedn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ion,” *Business Economics*, 35–44.
- Lusardi, A., Mitchell, O. S. & Curto, V. (2009)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Sophistication among Older Americans,” NBER Working Paper 15469.
- Warthington, A. C. (2006) “Predicting Financial Literacy in Australia,” *Financial Services Review*, 15, 59–79.
- Williams, J.S. (1978), “Determinants of the Housemakers’ Perception of the Security of Financial Problems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Ph.D Dissertation in University of Illinois.
- Xiao, J.J., Sorhaindo, B. & Garman, E.T. (2006), “Financial Behaviors of Consumers in Credit Couns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0(2), 108–121.

부 록
<부록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노인소비자를 위한 재무관리역량 척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각각의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오직 연구자료로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오니,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답변은 저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재무연구실

석사과정 최 윤 나 / 교수 최 현 자

E-mail. yunnac@snu.ac.kr

[Section 1: Screening Questions]

SQ1. 귀하는 65세 이상이십니까?

- ① 예 -> Section 2로
- ② 아니오 -> 설문 중단

[Section 2: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질문]

A. 다음은 귀하가 평소 재무관리를 하시면서 가지는 태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평소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v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솔직한 생각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1	나는 비교구매와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A2	나는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운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B2	나는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B4	나는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C1	나는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저축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					
C4	가진 돈을 아껴서 불리는 것보다, 지금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나에게서 더 기분 좋은 일이다.					
D2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D3	나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D4	나는 가구주의 사후를 대비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하다.					

E2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F1	나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F3	재무관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도달할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B. 다음은 귀하의 재무관리지식에 관한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O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면 X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재무관리지식		O	X
G2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실질소득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G5	공돈이 생겼을 때 그냥 써 버리는 대신 저축을 했다면 내가 포기하는 것은 없다.		
H2	신용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미래의 소득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3	할부를 이용하거나 연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I4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인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적다.		
I6	자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으면 변동성이 커져서 위험도도 높아진다.		
I10	적립식펀드 투자(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덜 위험하다.		
J2	보험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J1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보험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		
K1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K4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K2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L4	금융시장에서 문제를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L6	재무 설계안을 제시하기 전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재무목표와 현재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C. 다음은 귀하의 평소 재무관리능력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평소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현 상태를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기능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M3	나는 월말 혹은 연말에 지출 내역을 결산하고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M6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와 언제 내야 하는지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N3	나는 신용을 사용할 때 원리금을 계산해보고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N5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이자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N7	내가 사용한 신용이 현재 연체 상태에 있다면, 나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					
O1	나는 각종 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 저축 및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어려움 없이 탐색할 수 있다.					
O3	나는 나의 재산 중 예금, 주식, 부동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O5	나는 나의 투자 목표(예, 단기여유자금 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에 맞는 투자 상품(예, CMA-적립식펀드)을 선택할 수 있다.					
O6	투자 안을 선택할 때, 나는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					
P2	지금 당장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자동차 보유자의 경우),연금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면, 나는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P5	보험 가입 시, 나는 보상범위와 한도, 효력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Q1	나는 나의 은퇴준비에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Q2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수 있다.					
Q6	나는 노후설계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재무 설계사, 금융업계 직원 등)를 활용할 수 있다.					
R2	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					
R5	나는 우리 집의 전반적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R6	특정한 재무목표가 세워지면, 나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관리전략을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					

[Section 3: 인구통계적 정보 및 가계재정상태에 관한 질문]

- S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 S2. 귀하의 현재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 S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학교 재학 이상
- S4. 귀하의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기혼이며 결혼상태 유지 ② 이혼/별거/사별 ③ 미혼
- S5. 평균적으로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드십니까? (약 _____만원)
- S6.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버십니까? (월 평균 세후 소득)
(약 _____만원)
(근로소득, 예금,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사업소득의 합으로 세금 제외)
- S7. 귀하의 총 자산은 얼마입니까? (약 ____억_____만원)

S7-1. 귀하의 자산 중 금융 자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저축, 주식, 채권 등 모두 포함) (약 ___억_____만원)

S8. 갚아야 할 돈(부채)이 있습니까?

- ① 예 -> S8-1문항으로
- ② 아니오 -> S9 문항으로

S8-1. 현재 갚아야 할 부채 총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약 ___억_____만원)

S9.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S9-1문항으로
- ② 아니오 -> S10 문항으로

S9-1.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저축을 하십니까? (약 _____만원)

S10.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S11. 귀하는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상관계수를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1 ($r>=.05$)

하위영역 구성요인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 기능	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1	0	6	7
신용과 부채관리	2	1	8	11
저축과 투자	4	1	7	12
위험관리와 보험	3	0	6	9
노후설계	2	1	6	9
금융시장환경과 재무 관리의사결정	1	0	7	8
계	13	3	40	56

<부록3> 상관계수를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2 ($r>=.04$)

하위영역 구성요인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 기능	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2	0	6	8
신용과 부채관리	0	0	8	8
저축과 투자	1	0	7	8
위험관리와 보험	2	0	5	7
노후설계	0	0	6	6
금융시장환경과 재무 관리의사결정	3	0	7	10
계	8	0	39	47

<부록4> 요인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1

하위영역 구성요인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 기능	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3	5	3	11
신용과 부채관리	4	6	7	17
저축과 투자	4	5	4	13
위험관리와 보험	5	3	2	10
노후설계	1	2	6	9
금융시장환경과 재무 관리의사결정	4	4	5	13
계	21	25	27	73

<부록5> 요인분석을 활용한 척도 단순화 결과 2

하위영역 구성요인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 기능	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0	0	6	6
신용과 부채관리	2	0	8	10
저축과 투자	3	0	7	10
위험관리와 보험	1	0	5	6
노후설계	1	1	6	8
금융시장환경과 재무 관리의사결정	0	0	7	7
계	7	1	39	47

Abstract

A Study on the Financial Competency of Elderly Consumers

Choi, Yunna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complexities of the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ageing popul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financial competency of elderly consumers whom are 65 years old and older. Unfortunately, the research into the financial competency of elderly consumers has not been extensive. Furthermore, in previous studies that particular demographic has often been excluded. This study's aim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current financial competency of elderly consumers with a proper set of tools.

We tackle the problem of how to measure financial competency of elderly consumers and provide a proper measuring tool by simplifying the existing financial competency measure (Kim, 2011) and modifying it for elderly consumers. With the measure, the current financial competency for elderly consumers is evaluated using 150 cases of data sets. Then we identify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competency and

financial welfare of the elderly consumers.

The following findings of the study were made:

First, a measure for elderly consumers was adapted and then used in conjunction with a smaller number of questions; 43 questions on measuring financial competency – including 12 questions about financial attitude, 14 questions on financial knowledge and 17 questions on financial skills.

Secondly, 150 elderly consumers' financial competencies were evaluated with the modified tools. The total score of financial competency for the elderly consumers came to a total of 68.17 out of 100 points. Among three areas, skill area competency was the highest at 71.68, attitude area competency was 70.17 and knowledge area competency was the lowest as 62.67. Among six sub-categories, credit and debt management was the highest at 75.38,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and decision-making for financial management was 72.53,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was 68.77, savings and investment was 63.82, retirement management was 62.93 and managing their income and spending was the lowest as 62,78.

Finally, the financial welfare of elderly consumers in the study was evaluated objectively and subjectively. The levels of financial welfare were related to their financial competency. The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levels of financial competency that an elderly consumer has, the higher financial welfare he/she has.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elderly consumers, policy-makers and consumer educators. Elderly consumers can measure their financial competency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tatus of financial competency and in turn may be able to understand their financial weaknesses using the measure. Policy makers and consumer educators should be able to garner ideas in developing related policies by understanding elderly consumers' financial competency levels and their financial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guidance for elderly consumers, policy-makers and consumer educators in order to enhance elderly consumers' financial competency and financial welfare.

**Keywords : Elderly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Financial Competency Measure, Financial Welfare**

Student Number : 2010-23631